

➤ Advice : 2

학원강의 활용법

종합반 합격생이 전하는 수험생활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매년 이 기간에 학원 선택으로 고민하던 생각이 나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한림에서 2년 공부하였고, 조금이라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에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쓰다보니 음슴체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12회 변시 성적표 첨부합니다.

선택형			논술형										전문직법률분야	
공법	형사법	민사법	공법			형사법			민사법				국제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3문	기록형	1문	2문
90.00	92.50	137.50	56.02	53.45	62.18	58.96	57.41	51.87	80.78	41.96	58.67	94.07	44.71	39.26
			171.65			168.24			275.48				83.97	
총점			1019.34											

2. 한림 선택 당시 학습 상황 및 선택이유

-처음 한림을 가기로 결정한 때, 객관식 공부에 대한 감이 없던 상황(본시험 객관식 70개수준)이었음.
합격친구를 통해 한림 소개받고 형사법 김기환변호사님을 소개받음. 변호사계 객관식 공부방법부터 새로 배우게 됨. 정말 감사하게도 선지 읽는 방법부터 시연해주셨고, 사실상 전과목 공부방법 세팅을 다시 해주셨음. 김기환 변호사님 통해서 수험적합적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수준. 과외식 첨삭만 등록 후 수강. 11회 변시에서 객관식 100개, 총점 13점차이 탈락.

- 그 다음해에는 베리, 합격, 한림 모두 상담 받은 결과, 과목별 성적변화등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부방법이 틀렸던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음. 환경을 바꾸는 실익이 크게 없다고 판단했고, 학원운영 독서실이 생겼다고 해서 한림 선택. 다만, 침식반의 경우 책을 각자 만들어야하는데 한림 강사님 커리를 최대한 다 따라가면서 회독수 늘리는게 나을 것 같았음. 결국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쓸 수 있다는 생각에 강의반을 선택함.

3. 학원 및 독서실 생활

가. 일과

강의반은 거의 오전 수업진행. 8:40-9시 사이 도착해서 강의 듣고 점심먹은 후 진도범위 복습, 해당범위 객관식풀이. 최대한 객관식은 밀리지 않고 하려고 노력했음. 주말에는 기록형 스터디에서 쓰기연습을 했음.

나. 학원, 독서실 인프라

-학원 시설은 학생 밀도가 높지 않아 만족스러웠음.

-독서실은 2층 칸막이석, 3층 오픈형 좌석으로 구성. 22년에 처음 오픈한 시설이라 2층 칸막이 책상과 의자의 경우 전부 새것이였음. 하지만 의자는 개인 의자 사서 쓰는 경우도 보였음. 작년엔 오픈석 사용이 자유롭게 가능했고, 11월까지 3층에서 주로 공부함. 3층에 휴게실이 있음.

-독서실에서 불편했던 점: 화장실에 온수가 안나왔음. 겨울에 힘들었음.

다. 스터디

강의반 학생들끼리 독서실 오픈석에서 주말 오전에 기록형 기출 쓰는 스터디를 여름까지 했고, 기록형감을 잃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음.

라. 관리

수업과 독서실 출책이 이루어지지만 페널티가 강하게 부과되는 시스템적인 강제성이 있었던 것은 아님. 하지만 대리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이름, 출결상황에 대해 다 파악하고 계시고, 독서실 자리에 없으면 대리님이 행방을 찾으러 다니심.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좋았음. 개인적으로, 대리님께 일주일 학습계획을 보내고 성취여부를 매일 보고했는데 수험생활 내내 체크해주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음. 독서실에서 다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고 독서실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열품타 스터디를 하면서 상호감시와 순공시간 강제가 되었음.

4. 과목별 강의 및 강사선택

가. 헌법-선동주 선생님

1순환에 기출을 모두 훑어주시는 선동주쌤 변사기 강의를 들었고, 기출 유형 파악에 도움을 많이 받음.

나. 행정법-서창교 선생님

1순환기간에 한림에 행정법 선택지가 없어서 메가 사례형 강의를 혼자 듣고 객관식을 풀었음. 2순환부터 서창교 선생님이 오셨고, 이후엔 서창교 선생님 커리를 계속 따름. 행정법 강의 중 최고의 강의였음. 행정법의 주요 테마를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개념간 연관성과 논리에 대해 전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주심. 여러 고등고시 1차시험을 짧은 시간안에 한꺼번에 합격하신 분이시고, 강의 중간중간 말씀 해주시는 수험에 대한 자세나 공부방법론, 공부방향등은 수험기간 단축을 위해 꼭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다. 형사법-김기환, 이재상

〈김기환 변호사님〉

-사례형, 객관식: 첫해부터 김기환 변호사님 커리를 따라감. 1순환에 변사기를 돌려주시고, 진모기간에 사례대신 레인보우 객관식 기출 강의를 진행하셨음. 기출 회독 늘리기에 매우 적합했음.

-기록형: 기록형 쓰는 수업 외에 노수환저 핵심형사기록 책을 돌려주시는 기록형 기본강의와 11월쯤 진행되는 특강이 있음. 수업듣는 과정에서 2회독 효과를 본셈이고 강의 듣고 따로 1회독해두어서 마지막에 형사기록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을 수 있었음.

-최신판례 강의는 꼭 들어야함. 최신판례 자료를 요약해서 주시지만 판례 내용을 많이 살려서 주시는 편이라 회독할수록 오히려 속도가 크게 빨라졌고, 맥락을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훨씬 좋았음. 특히 최판 설명하실때 객관식, 사례, 기록에서의 구성 등 각각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계속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 체감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음. 특히 최판에서 객관식으로 출제될만한 지문을 뽑아서 ox를 만들어주셨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음.

-작년에는 진모 진행을 안하셨지만, 재작년에는 진모, 파이널에서 만들어주신 문제에서 불의타까지 거의 다 나왔음. 하지만 올해는 진행하실지 모르겠음.

〈이재상 박사님〉

-진모는 이재상 박사님을 들었고, 형사 사례 점수가 안정적이지 않아 힘들었는데 박사님께서 수업에서 답안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심. 개인적으로 요청드렸을때도 2시간 넘는 시간동안 학교 모의고사 답안지, 학원 답안지들을 전부 꼼꼼히 보시면서 답안지 클리닉을 해주셨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 정말 감사했음. 이재상 박사님께서 총론 이론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지만 강의중에 이론 설명을 조금씩 해주시는 때가 있는데 짧게 핵심을 관통하는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형법 객관식 기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론문제들의 출제의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음.

라. 민사법-김남훈 변호사님

-일정: 1순환 암기장강의, 2순환 최판, 3순환 진모, 4순환 파이널, 12월 초 리마인드특강으로 진행되었음.

-김남훈 변호사님 수업을 듣기 전까지 로민정, 로소정, 로기정 회독수를 늘리며 강의 무한반복을 했고 점수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음. 주변에 로민정을 통해 고득점한 친구들이 있어서 회독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으나 지금 생각하면 내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안맞는 책과 강의였음.

-한림에 와서 김남훈 변호사님 강의를 처음 들었고, 민법이 이해과목인 것을 깨닫게 됨. 기본 개념부터 판례까지 모두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주시니 숨통이 트였음. 김남훈 변호사님 암기장, 진모, 최판, 첨삭반 파이널 문제 답안(리마인드 특강에서 강의반 학생들에게도 나눠주심) 위주로 반복함. 이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민법은 충분히 회독을 못했음.

-민기록의 경우, 1순환 기간 주말에 강의를 듣고 3순환 진모기간에 주로 변호사님이 만드신 모의기록을 썼는데 기록형 문제의 양이 많고 난이도가 높았음. 그 덕에 트레이닝이 되었는지 법전협 모의고사 기록형은 시간이 넉넉했고, 답안 틀이 잡힌 후에는 판례 결론이 틀려도 점수가 평균이상으로 잘 나오기 시작했음.

-체감 적중률: 민사레시험 다음날 변호사님께서 올려주신 답안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암기장, 진모, 파이널 문제에서 그대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중률이었음.

-질의응답: 한림을 다시 선택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김남훈 변호사님께서 민사법 공부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이었음. 질의응답 시간내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음. 민사법 감을 잡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두려움이 컸는데, 편하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음. 너무 죄송했지만 객관식 기출 책, 사례집을 통째로 가져가서 플래그 달아둔 부분을 전부 질문한 적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질문을 다 받아주셨고, 감사한 마음에 공부에도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음.